

## 11/10(화) 사사기 묵상 14

### 사사기 4:1-3

에훗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죄를 짓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또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며 부르짖자 하나님은 네번째 사사인 드보라를 보내주셨습니다.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첫번째 여자 사사였습니다.

#### 하솔 땅 가나안 왕 야빈

하솔(Hazor)은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납달리 지파의 지경에 속하는 북부 가나안 성읍 중 하나로 학자들에 따르면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새(평지)에 해당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당시 야빈 왕은 철 병거 구백 대를 보유하고 있었고 철병거는 산악 지대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평지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무기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묵상한 대로 형편없는 도구(단칼, 소모는 막대기, 향아리와 횃불 그리고 나팔)로 적들과 싸웠던 이스라엘에 비하면 가나안 왕 야빈의 군사력은 초일류 무기들이었습니다. 수 1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 지역을 점령할 때도 하솔 땅에 ‘야빈’이 왕으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수 11:1-4,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의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롬 물가에 진 쳤더라.”). 여호수아가 생존했던 당시에도 이 지역은 적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왜냐하면 하솔 왕 야빈은 이 지역에서 수많은 다른 왕들과 연합하고 강력한 군사력으로 이스라엘과 저항했기 때문입니다.



<하솔 지역>

그러나 이상한 점은 여호수아서 11장과 사사기 4장 사이에는 약 100년 이상의 시대적 차이가 생

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솔을 다스렸던 ‘야빈’은 왕의 이름이 아니라 왕의 공식 호칭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마치 애굽의 ‘바로’와 블레셋의 ‘아비멜렉’처럼 말입니다. 비록 하솔 왕 야빈은 여호수아 시대에 이미 전쟁에서 패배했지만 그들은 다시 1세기 만에 세력을 키웠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납달리 지파 지역에 거주했던 적들의 불씨는 완전히 꺼지지 않았고 납달리 땅에서 그 자손들에 의해 다시 살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삿 1:33, “**납달리는 벤세메스 주민과 벨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벤세메스와 벨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장하여 그들 지파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잘 지키고 관리했다면 그럴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그들의 우상과 패역한 길을 쫓고 그들과 혼인함으로써 결국 그들 안에서 내부의 적들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와 사사기 말씀의 차이점을 비교한다면 여호수아서는 주로 외부에 있는 적들과의 싸움을, 사사기는 내부 적들과의 싸움을 다루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믿는 자들에게 더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은 사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한국에서는 기독교 신앙으로 인한 외부적인 핍박과 박해는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사탄은 영적 카멜레온과 같은 존재로 당시 철병거에 비유할 수 있는 이 시대와 문화에 교묘하게 파고들어 가장 세련되고 최신의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세상의 신과 악한 문화 그리고 세속의 가치관들을 분별하며 대적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롬 12: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알 수 있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함으로 우리 안에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을 세우고 기도함으로써 성령 충만으로 무장한 주의 좋은 군사들이 되어 우리 앞에 놓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 <기도제목>

1.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내부의 적들을 분별하고 영적으로 날마다 깨어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주의 군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2. 우리교회가 함께 협력하는 흥패밀리<키르기스스탄>, 권영봉<우크라이나>, 이창배<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의 가정과 현지 사역지의 건강과 필요 그리고 영적인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3.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주변에 코비드 19로 인해 또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처한 교우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